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9~4/15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꽃비 오니 봄날이다	동은	조계종출판사	6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정토
2	초역 부처의 말	코이케	포레스트북스	7	법정스님 인생응원가	정찬주	다연
3	33관음 컬러링북	정기란	담앤북스	8	병원 명상	김종우외	담앤북스
4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108 필사 명상	법상	조계종출판사	9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	인해, 명오	민족사
5	완전한 깨달음(원각경)	이제열	민족사	10	부처님의 당부	비구보디	사유수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크리스천과 함께 읽는 금강경(양장)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6	디가니까야(1) 길게 설하신 경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2	부처님의 당부:초기경전에서 선별한 지혜의 말씀	비구 보디/등현 감수	사유수	7	불멸(3)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이각	지혜의눈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4	니까야강독2(초기불전006)교학과 수행	각묵,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9	영가천도 법어	청화 큰스님 법문집	광륜출판사
5	불교심리학과 위빠사나수행의 지침서	아날요/이필원 외	명상상담연구원	10	철학으로서의 불교(대원불교학술총서09)	마크 시더리츠	운주사

남지심 작가가 그린 죽음과 생명의 실상



인간은 죽지 않는다(전 3권)
남지심 지음
얘기꾼 / 1권 1만6800원
2-1권 · 2-2권 각 1만4800원

연기·윤회의 관점서 바라본 '죽음 이후'의 세계
원력 보살들이 환생해 펼치는 '원생(願生)' 담아
45년 문학 인생 회향…"대승불교 운동 펼쳐지길"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죽음'은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끝내 외면하고 싶은 진실이다. 대표적 불교 작가인 남지심 씨의 신작 〈인간은 죽지 않는다〉(전 3권)는 연기와 윤회의 관점에서 죽음과 생명의 실상을 탐구한 소설이다. 올해로 45년을 맞은 문학 인생을 회향하는 역작이자, 평생을 불교 신자로 살아온 작가의 불교적 해답이다.

남 작가는 1980년 〈솔바람 물결 소리〉로 등단해, 40대 중반의 나이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우담바라〉(전 4권)를 펴냈다. 〈솔바람 물결 소리〉로 불교에 입문한 작가는 〈우담바라〉로 구도의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우담바라〉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다"고 생각해 이후 소설을 쓰지 않던 작가를 다시 책상 앞으로 끌어당긴 건 '죽음'이다.

"70대 중반이 되고 보니 죽음의 문제를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은 삶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는 또 하나의 내 삶이잖아요.



등단 45년을 맞아 죽음과 생명의 실상을 그린 소설을 발표한 남지심 작가.

불교 신자인 나는 윤회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꼭 그려보고 싶었고, 그 답이 이 책입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문학작품이 현상계를 다루었다면 이 책은 원력 보살들이 환생해 현실 속에서 그 원력을 펼쳐가는 원생(願生)을 그리고 있다. 1권에서는 주인공이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환한 빛을 따라 중유(中有) 세계에 이르고, 그곳에서 여러 스승을 만나 단계에 맞는 수련을 거쳐 현실 세계로 환생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다. 이어 2권에서는 대학 총장과 기자, 작가 등 저마다의 원력을 품은 보살들이 환생해 법운사와 예경원을 중심으로 '생명의 실상' 공동체를 이루는 이야기가 생동감 있게 그려진다.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고통을 겪는 것은 탐진치(貪瞋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중생계라고 하지요.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인간의 세계입니다. 자기애(自己愛)에 갇혀 있긴 하지만 우리의 근본 마음은 우주 근원을 담고 있으므로, 내 안에서 나를 가두고 있는 자기애를 벗겨내면 우주의 근원과 일치하는 대자유인 곧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려주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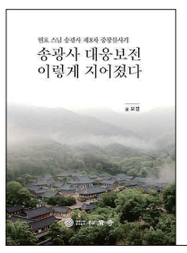
소설은 인간의 죽음과 그 이후의 상황을 직접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장영우 동국대 문예창작과 명예교수는 "이 책은 제목과 내용 모두 소설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상식을 충격한다"며 "인간의 정신적 수행 및 이타적 실천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불교의 윤회와 보현행원 사상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야기로 풀어낸 〈화엄경〉 '십지품'의 변상도라 명명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남 작가는 "죽음과 윤회의 과정을 알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절로 얻게 된다"며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 불자다. 소설에서 우리 삶의 전 과정과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교적 해답을 들려주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작가가 '죽음 이후'를 천착한 것은 '지금 여기'를 잘 살기 위함이기도 하다. 때문에 소설에 '지금 여기'를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모든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존중해야 한다는 '예경제불(禮敬諸佛)'이 그 핵심이다.

"이기심에서 벗어나 내 안의 본성을 환히 보는 자리,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 견성(見性)이고 그 능력을 기르는 것이 수행입니다. 불교문학이란 수행을 통해 부처에 이르는 과정을 글로 쓴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 마지막 소설이 될 〈인간은 죽지 않는다〉가 독자들에게 생명의 실상을 바로 보는 길잡이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스승의 불사를 기록하다



송광사 대웅보전 이렇게 지어졌다
보경 지음
송광사 / 3만5천원

80년대 현호 스님의 송광사 중창불사 과정
상좌 보경 스님이 기록과 사진으로 되살려
"꼼꼼한 불사 기록이 이 시대의 역사"

1980년대 이뤄진 조계총림 송광사의 중창불사 기록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1983년 출가해 은사 현호 스님의 중창불사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보경 스님(송광사 탑전)은 당시 불사와 관련한 기록과 사진 등을 655쪽 분량의 책으로 엮어냈다. "과거의 문화유산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재를 만들어 후대에 남기려는 것"이라는 은사스님의 뜻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다.

〈송광사 대웅보전 이렇게 지어졌다-현호 스님 송광사 제8차 중창불사기〉는 송광사 사보였던 월간 '불일회보'에 실린 글과 사진, 도감 책임을 맡았던 신영훈 대목장의 불사 연재기를 뼈대로 삼고 있다. 여기에 보경 스님이 보고 겪은 일과 소회를 정리한 '손바닥 소설'을 덧붙였다. 단순한 '불사기(記)'를 넘어 은사스님의 일생을 조망하고 송광사의 역사를 기록하겠다는 뜻에서다.

1983년 송광사 주지에 취임한 현호 스님은 곧바로 중흥불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스님은 모연문에서 "한국전쟁으로 도량의 중심부에 있던 크고 작은 건물 26동이 하루아침에 불에 타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본사 스님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대웅전 등 몇 채의 건물이 아쉬운 대로 복구되었습니다.〈중략〉 그러나 운집한 대중의 수에 비해 대웅전이 너무 비좁아 조석예불 때나 법회 때 전 대중이 한자리에 모



현호 스님의 상좌 원경 스님(사진 왼쪽)과 보경 스님은 4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980년대 이뤄진 조계총림 송광사의 중창불사 기록을 담은 책 〈송광사 대웅보전 이렇게 지어졌다〉의 출간을 알렸다.



책에는 1980년대에 이뤄진 송광사 제8차 중창불사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진은 당시 대웅보전 기단을 놓는 모습. 사진 제공=송광사

일 수 없는 형편이고 방사가 모자라 수도정진을 위해 멀리서 찾아오는 발심수행자들을 되돌려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여덟 번째 중창 불사의 이유를 밝혔다.

이후 10년에 걸쳐 이어진 불사의 과정이 400여 쪽에 이르는 글과 250여 장의 사진으로 책에 고스란히 담겼다. 인문학적 관점으로 고찰한 공간과 역사, 일주문과 각각의 전각에 담긴 불교적 의미 등도 정리했다. 여기에 목우가풍 선양을 위한 보조사상연구원 설립, 전법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서울 법련사와 미국 LA 고려사 설립 과정도 짚었다. 보경 스님은 "이러한 대작불사로 송광사가 승보종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그 의미를 짚었다.

보경 스님은 "800년 송광사 산문의 역사 중 1980년대라는 10년의 CT 한 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책의 집필에 임했다"며 "전국의 사찰에서 크고 작은 불사의 기록을 꼼꼼히 남겨둔다면, 훗날 불사를 하는 사람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가르침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호 스님의 상좌 원경 스님(서울 심곡암 주지)은 "은사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일에 힘써준 보경 스님께 문중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이 책이 불교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잊힌 역사 기록하고 기억하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이것이 천태불교의 핵심이다!
천태불교의 이론과 실천
인도불교를 중국불교로 최초로 정착시키고 토착화시킨 천태불교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 전반을 서구 철학자의 안목으로 알기 쉽게 조명한 역작이다!
브룩 지포린 지음/정천구 옮김/520쪽/값 30,000원

불교철학 초심자들을 위한 안내서!
불교철학 길라잡이
2,500여년에 걸친 불교사상의 변천과 전래과정을 추적하여 불교철학의 주요 얼개를 오늘의 언어로 보여주는, 불교의 지적 전통에 관심 있는 독자들을 위해 개론서이다.
이규완 지음/276쪽/값 20,000원

인공지능시대,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
공심이의 비밀일기
자꾸만 AI에 기대는 아이의 모습에 어른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주인공 공심이와 함께 명상여행을 떠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김임천 글 · 그림/216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